

敬天愛人을 구현하는 江南大學校

孫 鍾 律

(江南大 總長)

1. 沿革과 建學理念

본 대학의 역사는 1946년 8월 YMCA 4층 강당을 빌려 70명의 학생으로 개원한 중앙신학원으로부터 시작된다.

1920년대 북간도 일대를 누비며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했던 友團 李浩彬 목사가 구국의 길은 폭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자각하면서부터 기독교 정신에 의한 국민정신의 개혁운동으로 싹트게 된 것이었다.

1930년대에 항일운동의 대열에서 벗어나 기독교 신앙인으로 개심한 그는 뒤늦게 신학교를 거쳐 목사가 됐고 그의 첫 목회지였던 북간도 훈춘 일대를 무대로 하여 실항동포들의 정착사업에 앞장을 서는가 하면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 해방이 되면서 평양에 돌아와 뜻있는 동지들을 모아 평화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성도 고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중,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창당되는 조민당 창당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신탁통치 반대의 주모자로 몰려 서울에 남하하였다.

서울의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을 개탄하던 우원

은 실항 청년들이 우왕좌왕하는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없어 아무런 준비없이 남하한 빈손으로도 저 젊은이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는 조급함에 무조건 신학교 설립을 결심했다. 교단을 배경으로 하여 교단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그때의 신학교들의 실정이었으므로, 교단 배경없는 신학교의 설립을 기독교단체들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선교사들에게 선교된 교단들의 교권주의, 교파주의 등 근본주의 신학의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우원의 교육관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내세운 건학 정신은 첫째로 평신도 지도자의 양성, 둘째로 초교파적인 교육, 셋째로 자주·자립의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의 교육 이상이었다.

먼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는 그의 의지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자유로운 학문을 추구할 수 없고 자연히 어느 세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나라의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신지자적인 지도자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독교는 특정 교단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할 때 그 정

신이 거리낌없이 사회개혁의 정신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교회는 교역자 중심의 구조로는 사회변화에 기독교 정신을 깊이 불어넣을 수 없고 평신도가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어 평신도들이 사회 일선에서 기독교 정신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은 신선한 충격으로 교계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각 교단의 저명한 교수들이 보수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적극 나서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중앙신학교 정신을 큰 긍지로 삼고 열심히 배웠다.

시대를 앞질러 내다보는 이러한 훌륭한 교육목표에 찬동한 독지가 우암 차재운 선생이 불교인이면서도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소재의 막대한 재산(토지 30만 평)을 조건 없이 회사하므로 1948년 4월 20일 국내 사립대학으로는 최대의 수익재산을 기반으로 한 학교법인 우암재단이 설립되었고, 동년 8월 국내 신학교로서는 유일한 대학령에 의한 4년제 대학인 중앙신학교가 설립인가되었다.

53년 6월에는 6·25의 비참한 전화로 크게 상처입은 자들을 구출하는 일이 급선무로 떠오른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사업요원을 시급히 양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국내 최초로 4년제 대학 학제의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피난중에는 부산에 본교를 두고 제주, 대구, 서울에 분교를 개설하여 계속 강의를 했다. 그러나 YMCA 건물이 전화로 소실된 것이 학교발전의 타격을 입혔고 자주·자립적인 경영의지는 극심한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설립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설립자의 교육의지는, 그 동안 교육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파행적으로 팽대해지는 잘못된 교육풍토에 결코 영합하지 않는 외로운 걸음, 주변으로부터 퍼부어지는 견딜 수 없는 시기와 조소, 그리고 부당한 핍박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느냐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나님의 소명만을 바라보면서 차곡차곡 100년 후의 밝은 미래를 씨뿌린다는 교육 본연의 길을 걸었다.

60년초 5·16 군사정부는 잘못된 교육현상을

개혁한다는 새로운 문교정체를 내세웠으나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시행과정에서 중앙신학교의 교육적인 특징을 말살하려 했다. 신학교는 신학과의 학과를 병설할 수 없다는 경직된 정책으로 사회사업과를 폐교하라는 것이었다. 사회사업과의 교육적인 성과라든지 사회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필수적인 학문분야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신학교와 같은 틀에 잡아넣어 중앙신학교의 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획일화의 부작용이었다. 결국 이에 저항하다 62년 1월 대학정비령에 의해 적절하지 않은 정책판단으로 폐교조치되었다.

그러나 불같은 교육의지를 굽힐 줄 모르던 재단, 학교, 동문들은 정규대학의 간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결의로 중앙신학교 재설립 운동을 펼쳤으나 끝내 각종학교로서의 중앙신학교로 재출발하는 실욕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는 동안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었고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은 이상교육 실현을 암담하게 하였다. 이러한 때에 1960년 중반부터 재단 감사와 이사직을 맡아 새로운 소명자로서의 길에 들어섰던 신학과 동문인 윤도한 박사가 70년 초반 제 9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막대한 사재를 투척하고 뛰어난 경영능력과 철저한 사명의식으로 학교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우여곡절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잃어버렸던 4년제 정규대학의 본래의 모습도 1976년 4년제 대학 동등학력인정학교로 인가, 정규대학으로의 개편을 전제로 법인 명칭과 학교명을 학교법인 강남학원과 강남사회복지학교로 변경하는 등 국내 어느 대학에 못지 않은 만반의 준비를 구비하여 10여년간 끈질기게 대학설립인가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미루어져오다 1990학년도에야 강남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됨으로써 본래의 궤도에 재진입하였다. 그리고 1992학년도에는 종합대학으로 개편, 6개 단과대학 32개 학과와 1개의 대학원으로 명실공히 21세기를 대비한 대학교육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2. 現況 및 施設

본교는 현재 신학대학(신학과, 종교철학과—야간), 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야간, 중국어중국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사회과학대학(법학과, 행정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사업학과—야간, 문헌정보학과, 부동산학과, 노인복지학과, 산업복지학과—야간), 상경대학(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야간, 세무학과—야간), 이공대학(수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학과—야간, 도시공학과, 산업공학과), 예체능대학(음악학과,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사회체육학과), 신학대학원(신학 석사과정/연구과정—야간, 교회지도자과정) 등 6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 그리고 14개의 각종 연구소가 유기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경천에인하는 겸허한 정신으로 6,000여 명의 학생과 120여 명의 교수 및 80여 명의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각기의 본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발굽형으로 둘러싼 시내산 자락에 안겨 남향으로 펼쳐진 본 대학의 캠퍼스는 10만여 평 고지에 오밀조밀 짜임새있게 배치돼 있다.

대학본부 건물을 중심으로 뒷덜미에 경천관(신학대학, 대학원)과 이공대학관이 있고 동쪽 어깨에 교육관(유아교육, 특수교육과, 교육학과), 서쪽 어깨에 국제수준에 맞게 설계된 웅장한 중앙도서관을 걸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에서 경천관으로 넘어가는 오솔길가에 후생관이 자리잡고 있다. 또 대학본부 앞에 깔려있는 잔디광장턱을 내려서면 목양호수가 학생들의 쉼터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호숫가를 동서로 가로지른 산책로를 경계로 남쪽에 5천여 평의 국제규격으로 설계된 대운동장이 1만여 평 수용 규모의 스탠드에 둘러싸여 시원스럽게 펼쳐 있다. 대운동장 동쪽 언덕 위에는 목양관(체육관)이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면서도 돋보일 만큼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서쪽에는 인문사회관(인문·사회·상경대학관), 그리고 인사관과 어깨를 겨누는 예체능관(예체능대학관), 대운동장에서 남쪽으로 내

리다보이는 정문 앞의 학생관은 학생자치활동 시설을 완벽하게 수용하는 규모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500여 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건물은 이공관 건물 너머에 아늑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수도권내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본 대학의 입지 환경은 명지대, 한국의국어대, 경희대, 용인대, 경찰대 등이 인접해 있어서 이들과의 연계개발을 추진할 경우 국내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캠퍼스 타운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더욱이 분당신도시 건설과 용인수지택지개발사업으로 주변의 상주인구가 증가할 뿐 아니라 수원과 용인군 기흥읍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기업의 신규입지와 이전입지가 늘어나고 있어 비약적인 발전의 여건이 충분히 구비되고 있다.

또 서울과 충북지방을 연결하는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 수원과 원주를 잇는 국도, 용인읍과 안성읍을 잇는 국도와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로 용인군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 대학은 서울에서의 통학거리 30분, 수원역과의 거리 20분, 수원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수시로 학교앞을 통과하고 있는가 하면 20여 대의 학교통학버스도 강의시간대에 맞춰 유기적인 운행을 하고 있다.

3. 教育目標 및 方向

본교의 교훈은 敬天愛人이다. 교육목표는 첫째로 예수의 정신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할 역군 양성, 둘째로 자주·자립 정신에 투철한 주체적 엘리트 양성, 셋째로 진취적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희생적 지도자 양성 등으로 이를 설명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의 정신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할 역군을 양성한다.

본교의 창립정신은 예수의 참생활을 본받아 이를 실천하는 것에 있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생활은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이타주의와 연대주의와 협동주의의 원천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웃이 누구이며 네 이웃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예수는 우리



▲ 강남대학교의 정신, 敬天愛人

에게 묻고 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내 이웃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날카롭게 묻고 계시는 것이다. 본교의 정신은 예수의 이 질문에 응답하는 역군을 육성하는 것에 뜻이 있다. 우리 이웃에서, 지구촌의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운동, 복지 사회의 실현을 위해 봉사하는 인재를 길러내자는 것이다.

둘째, 자주·자립 정신에 투철한 주체적 엘리트를 양성한다.

본교의 창학이념은 비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천명되고 있지만 이 셋은 모두가 공통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둘째 이념은 낡은 세대를 벗어나 바야흐로 새로운 세대로 진입하고, 조국을 발전시키려는 개혁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대의 요청에 부합되는 이념이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근세사는 인간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는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또 무

엇을 하고 어떻게 클 것인지를 인식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자각은 곧 자주와 자립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남의 말과 남의 행동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굳게 확립하는 노력이 없이는 신한국 창조라는 큰 물결 속에서 주인이 될 수 없다. 학교 당국이 이러한 주체적인 시민의 양성이란 이념을 망각한다면 이미 그런 교육기관은 존재할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이념 내지 정신은 예수의 정신에서 비롯되고 이념을 자각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진취적인 국민이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이 된다고 하겠다.

셋째, 진취적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희생적 지도자를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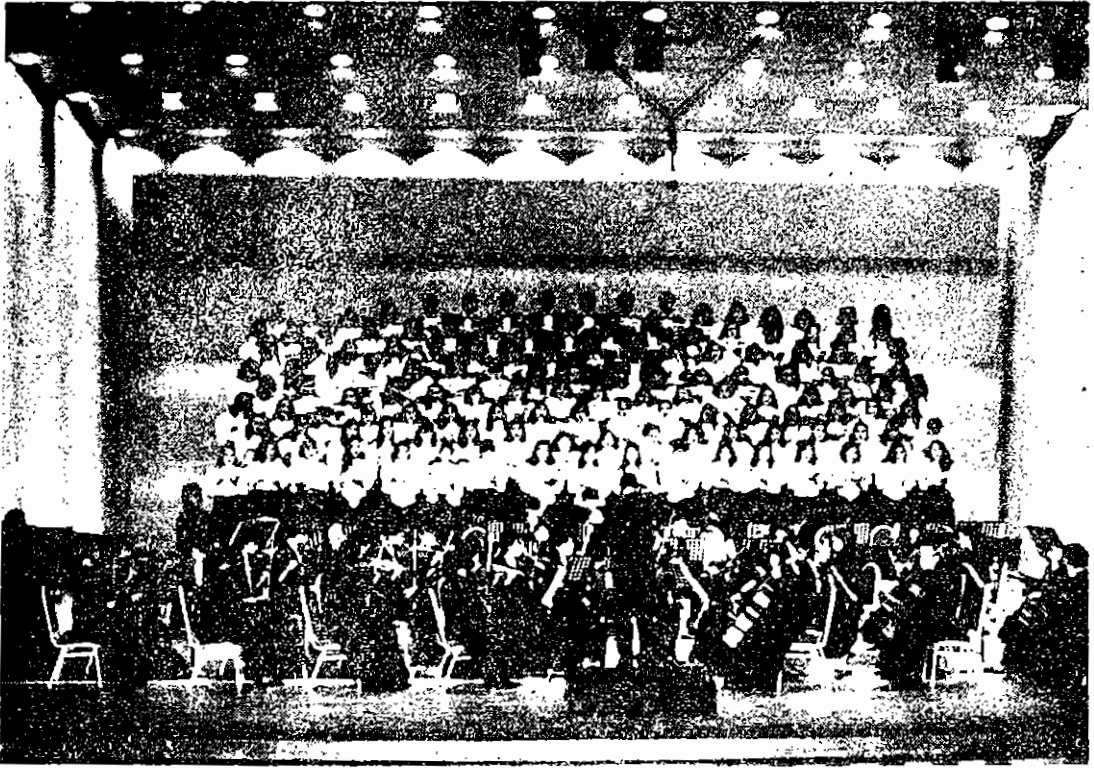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로 점철된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에 이르렀으나, 우리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아직도 발전인지 퇴보인지를 평가할 수 없는 실로 불안한 갈림길에서 우리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0여 년 전에 설립된 본교의 창학이념은 지금의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본교의 교육은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진취적 인간상과 그러한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희생적인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진취적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희생적 지도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에 헌신하려는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다. 어떠한 개인적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내 이웃과 내 나라,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려는 목적을 향해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을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4. 發展方向

우리 대학은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의 교육을 대비하여 여러 방면의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보편교육으로서의 대학 교육과정을,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교



▲ 강남대는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소양을 쌓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원동력이 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육과 그리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 및 정보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게 될 것이다. 먼저 본대학 4년간의 학생생활 중 첫째는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전인적인 지도자의 소양을 쌓도록 중점지도하여 건전한 사회개혁의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며, 둘째로는 세계화 마당에 주저없이 뛰어 들 수 있도록 원어강의의 장려 등 각종 어학훈련 과정을 최대화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미래경쟁의 핵심이 될 컴퓨터 응용능력을 최대한 제고하는 교

육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달성을 위하여 실험실습 시설을 최대한 확충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재학생을 기숙사에 전원 수용하여 소일교육체제를 실현하려는 계획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미래지향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 선진대학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문교류와 첨단기술의 연구기틀을 보강하기 위한 교수·학생 교환제도도 더욱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 ■